

‘불혹의 호랑이’ 최형우, ‘별 중의 별’

프로야구 올스타전 최고령 MVP 등극

홍린 포함 3안타 맹타...나성범 ‘우수 수비상’ 수상
“나이 들어도 할 수 있다, 후배들에게 귀감됐으면”

‘살아있는 전설’ 최형우(KIA 타이거즈)가 프로야구 올스타전에서 ‘별 중의 별’로 뽑혔다. 최형우는 지난 6일 인천 SSG 랜더스필드에서 열린 2024 신한 SOL뱅크 KBO 올스타전에서 나눔 올스타(KIA·LG·NC·한화·키움)의 6번 지명타자로 선발 출전해 2회 솔로 홈런을 포함해 4타수 3안타 2타점 1득점으로 맹활약했다. 최형우는 기자회견의 미스터 올스타(최우수선수·MVP) 투표에서 21표 가운데 19표를 휩쓸어 오스틴 딘(LG·2표)을 압도적으로 따돌리고 MVP에 뽑혔다. 40세 6개월 20일의 나이로 미스터 올스타에 뽑힌 최형우는 2011년 이병규(현 삼성 2군 감독·당시 36

세 8개월 28일)를 제치고 올스타전 최고령 MVP 기록도 세웠다. 그는 상금 1천만원과 트로피를 받았다. 나눔 올스타는 최형우의 활약에 힘입어 드림 올스타(두산·삼성·SSG·롯데·kt)를 4-2로 꺾었다. 12년 만에 KBO리그 올스타전에 출전한 류현진(한화)은 나눔 선발로 등판해 1이닝을 퍼펙트로 막고 승리 투수가 되면서 우수 투수상(상금 300만원)을 받았다. 홍린 포함 3타수 2안타 2타점 1득점으로 활약한 드림 올스타 데이비드 맥किन(삼성)은 우수 타자상, KIA 나성범은 우수 수비상(이상 상금 300만원)의 주인공이 됐다. 이날 시상식을 마치고 만난 최형우는 “나이 들어도 이런 데 나와서 할 수 있다는 것을 후배들이 느낀다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지난 6일 인천SSG랜더스필드에서 열린 2024 신한 SOL뱅크 KBO 올스타전 드림 올스타와 나눔 올스타의 경기에서 MVP로 선정된 나눔 KIA 최형우가 트로피를 들고 기념 촬영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6일 열린 올스타전 2회초 선두타자로 나선 나눔 KIA 최형우가 타석에서 딸과 아이를 맞이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형우는 “솔직히 나이가 너무 많아서 민망한 기분으로 왔었다”면서 “젊은 선수들이 열심히 퍼포먼스를 하는데 ‘내가 이 자리에 있어도 되나’ 생각이 들더라”고 말했다.

그는 “예전보다 퍼포먼스 문화가 강해진 것 같다. 예전에는 하더라도 짧게 하고 빨리 끝냈는데 지금은 다들 즐기면서 웃는 분위기”라고 비교했다. 그러나 속스러웠던 최형우도 거랑비에 옷 젖듯 축제 분위기에 흠뻑 빠져서 MVP 욕심이 생겼다고 한다. 2회 선제 솔로포를 터뜨린 그는 8회 3-2에선 왜기 적시타를 터뜨리며 MVP 수상을 확정했다. 2회 솔로 홈런에는 아이들과의 추억이 곁들여졌다. 아들과 딸에게서 헬멧과 배트를

건네받은 최형우는 들뿔 받은 기로 중월 선취 솔로포를 터뜨렸다. 최형우는 “아이들과 공식 석상에 나온 것이 처음이어서 열떨하게 퍼포먼스를 끝냈는데 말도 안 되게 초구에 홈런이 나왔다”고 기분 좋게 떠올렸다. 올스타 휴식기를 기분 좋게 보낸 최형우는 이제 시즌 후반기까지 기세를 이어가는 것이 목표다. 최형우는 “팀으로도 개인적으로도 완벽한 전반기였다”면서 “디테일하게 잘 추슬러 후반기를 이대로 끝낼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연합뉴스

한국 축구 사령탑에 홍명보

10년 만에 소방수 복귀...2027년 아시안컵까지 계약

2026 북중미 월드컵을 앞두고 흔들리던 한국 축구 사령탑에 결국 ‘형님’ 홍명보 울산 HD 감독에게 지휘봉을 맡겼다. 대한축구협회는 홍 감독을 차기 축구대표팀 감독으로 내정했다고 7일 밝혔다.

이로써 한국 축구는 지난 2월 16일 위르겐 클린스만(독일) 감독이 경질되고서 무려 5개월 만에 새 감독을 맞이하게 됐다. 축구대표팀을 한국인 지도자가 정식 감독으로 지휘하는 것은 2018년 러시아 월드컵까지 대표팀을 이끌었던 신태용 현 인도네시아 감독 이후 6년 만이다.

홍 감독은 선수로 2002 한일 월드컵 4강 신화에 앞장섰고, 지도자로서는 2012 런던 올림픽 동메달 신화를 쓴 한국 축구의 ‘영웅’이다. 2013-2014년 대표팀을 이끌며 2014년 브라질 월드컵에 나섰던 홍 감독은 이로써 10년 만에 대표팀 사령탑으로 복귀하게 됐다.

브라질 월드컵에서 조별리그 탈락해 크게 비난받은 경험은 북중미 월드컵에 도전하는 과정에서는 자선이 될 수 있다.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축구협회에서 전무이사를 맡아 행정에 대해서도 잘 안다는 점은 대표팀 안팎에서 장악력을 높일 수 있다는 측면에서 강점으로 꼽힌다.

홍 감독은 2021년부터는 울산에 이 끌고 2022시즌과 2023시즌, 두 차례 K리그 우승을 일궈냈다. 올해 A매치 ‘늦깎이’ 데뷔전을 치른 주민규(울산)



등 국내 선수들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안다. 이달 2일 다비드 바그너, 거스 포엣 등 외국인 감독과 면접을 진행하려고 유럽으로 출국했던 이명생 축구협회 기술본부 총괄이사가 귀국 후 지난 5일 홍 감독을 직접 찾아가 대표팀 사령탑 자리를 제의했다.

축구협회 관계자는 “이 이사가 ‘삼고초려’ 하듯이 홍 감독을 설득했다”면서 “홍 감독은 하루를 고민한 뒤 6일 저녁에 승낙 의사를 전해왔다”고 말했다. 이사회 추인을 받지 않아 아직 내정자 신분인 뿐, 홍 감독과 축구협회는 이날 오전 계약 절차를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계약기간은 기본적으로 2027년 1-2월 열리는 사우디아라비아 아시안컵까지 2년 6개월여다. 그에 앞서 2026년 6월에 열리는 북중미 월드컵 직후 중간 평가를 하게 된다.

홍 감독이 대표팀을 이끌게 되면서 K리그 3연패에 도전하는 울산 지휘봉을 누가 넘겨받을지도 관심사로 떠오른다.

홍 감독은 오는 9월 5일 홈에서 치러지는 팔레스타인과의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3차 예선 1차전부터 대표팀을 이끌게 된다. 대표팀 경기까지는 아직 시간이 꽤 남은 만큼, 그전까지 당분간은 홍 감독이 울산에 계속 지도할 가능성도 있다. /연합뉴스

감독	생년월일	감독 경력	2000년 이후 기준, 감독대행 재직
가스 하딩크 (네덜란드)	1947.11.11 - 2002.6.30 (19개월)	2002.2.3 - 2004.4.19 (14개월)	35%
홍명보 (대한민국)	1969.11.11 - 2002.6.30 (19개월)	2002.2.3 - 2004.4.19 (14개월)	50%
조병호 (대한민국)	1947.11.11 - 2002.6.30 (19개월)	2002.2.3 - 2004.4.19 (14개월)	44%
김종수 (대한민국)	1947.11.11 - 2002.6.30 (19개월)	2002.2.3 - 2004.4.19 (14개월)	50%
김종수 (대한민국)	1947.11.11 - 2002.6.30 (19개월)	2002.2.3 - 2004.4.19 (14개월)	35%
홍명보 (대한민국)	1969.11.11 - 2002.6.30 (19개월)	2002.2.3 - 2004.4.19 (14개월)	49%
조병호 (대한민국)	1947.11.11 - 2002.6.30 (19개월)	2002.2.3 - 2004.4.19 (14개월)	57%
최정호 (대한민국)	1947.11.11 - 2002.6.30 (19개월)	2002.2.3 - 2004.4.19 (14개월)	50%
홍명보 (대한민국)	1969.11.11 - 2002.6.30 (19개월)	2002.2.3 - 2004.4.19 (14개월)	26%
홍명보 (대한민국)	1969.11.11 - 2002.6.30 (19개월)	2002.2.3 - 2004.4.19 (14개월)	69%
홍명보 (대한민국)	1969.11.11 - 2002.6.30 (19개월)	2002.2.3 - 2004.4.19 (14개월)	33%
홍명보 (대한민국)	1969.11.11 - 2002.6.30 (19개월)	2002.2.3 - 2004.4.19 (14개월)	61%
홍명보 (대한민국)	1969.11.11 - 2002.6.30 (19개월)	2002.2.3 - 2004.4.19 (14개월)	47%

광주시청 김태효 시즌 첫 100m ‘金’

익산 2024 전국육상대회

광주시청 김태효(31)가 백제왕도 익산 2024 전국육상경기대회에서 시즌 첫 100m 우승을 차지했다. 김태효는 7일 익산에서 열린 대회 남 자일반부 100m 결승에서 10초37을 기록, 서천군청 이용문(10초45), 서울시청 오승우(10초49)를 제치고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하며 1위의 기쁨을 만끽했다.

올해 상반기 육상 국가대표팀에 차출돼 국내 대회를 많이 뛰지 못했던 김태효는 이날 앞바람(-1.5m)을 안고 뛰는 약조전속에서도 시즌 첫 금메달을 획득하며 하반기 활약을 예고했다. 김태효는 특히 지난달 전국종별육상경기선수권에서 우승하는 등 올 시즌 100m에서 두각을 드러내고 있는 이용문을 2위로 밀어내고 우승하며 단거리 정상 실력을 재확인했다. 심재용 광주시청 감독은 “김태효가



남자 육상 100m 시즌 첫 금메달을 획득한 광주시청 김태효. (광주시청 육상팀 제공)

대표팀에서 뛰느라 올해 상반기는 제대로 대회에 나서지 못했는데 이번에 100m 첫 우승으로 시동을 걸었다”면서 “전국체전이 다가오는 만큼 컨디션을 제대로 끌어올려서 단거리와 계주 모두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희중기자

서구청 펜싱 최은숙 회장배 개인전 우승

시즌 3관왕 등극



서구청 펜싱 최은숙(사진)이 제33회 회장배전국남녀중별펜싱선수권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하며 시즌 3관왕에 등극했다.

최은숙은 7일 충북 제천체육관에서 열린 여자일반부 에베 개인전 결승에서 박소영(전남도청)을 15대10으로 꺾고 정상에 올랐다.

최은숙은 8강에서 계룡시청 임태희(15대13승), 4강에서 경기도청 박소희(15대7승)를 차례로 꺾고 결승에 진출했다.

우승을 차지한 최은숙은 지난 3월 제26회 한국실업펜싱연맹회장배, 5월 제62회 전국남녀중별선수권대회 개인전 우승에 이어 시즌 3관왕을 달성했다.

남자일반부에 출전한 서구청 이승현은 8강에서 해남군청 김승재(9대8승)를 꺾고 4강에 올랐으나 부산시청 마세건(12대15패)에게 패해 3위에 머물렀다.

서구청 펜싱팀은 남자단체전에서도 3위를 차지했다.

한편, 파리올림픽에서 메달에 도전하는 강영미와 김재원은 컨디션 조절을 위해 이번 대회에 불참했다. /박희중기자

“엄지성, 너의 꿈을 응원해”...스완지 시티FC 엄지성 환송회 성료



잉글랜드 챔피언십(2부리그) 스완지 시티로 이적하는 광주FC 엄지성을 환송하는 행사가 지난 5일 오후 광주시청에서 열린 가운데 엄지성 선수와 이정호 감독을 비롯한 팬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광주FC 제공)

“언젠가 광주로 꼭 돌아와 팬 성원 보답”

프로축구 광주FC는 지난 5일 광주 시청에서 영국 EFL 챔피언십 소속 스완지 시티 AFC로 이적을 확정된 ‘프랜차이즈 스타’ 엄지성의 환송회를 진행했다. 이날 행사는 구단의 프랜차이즈 스타로서 유럽 이적을 하게 된 엄지성이 팬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전하고 해외 무대에서의 성공을 기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환송회에는 추첨을 통해 선정된 광주FC 팬 200명을 비롯해 이정호 감독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환송회는 1부와 2부로 나뉘어 진행

됐으며 엄지성의 인사를 시작으로 기념 영상 시청, 꽃다발 및 롤링페이퍼 전달식을 비롯해 팬들과의 질의응답, 애장품 경품 추첨 및 팬사인회 등의 행사를 진행했다. 엄지성은 “팬들의 응원 덕분에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저도 해외에서 광주를 열심히 응원할 것이다. 언젠가 광주로 꼭 다시 돌아와서 팬들의 사랑에 보답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팬들과의 질의응답 시간에서 등번호 7번을 물려주고 싶은 선수가 있냐는 팬의 질문에 엄지성은 “급하고 후

배인 안혁주 선수한테 물려주고 싶다. 고등학교 3학년 시절 당시 1학년이었던 안혁주 선수가 저를 많이 따라다녔는데 더욱 ভাল하면 하는 마음에 안혁주 선수를 선택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나중에 광주 팬들에게 받고 싶은 선물이 있냐는 질문에 “광주 시절을 추억할 수 있는 사진이나 물건을 선물 받는다면 많은 힘이 될 것 같다”며 “시즌을 마치고 한국에 돌아올 때 팬들에게 스완지 시티 유니폼을 직접 선물하겠다”면서 훈훈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박희중기자